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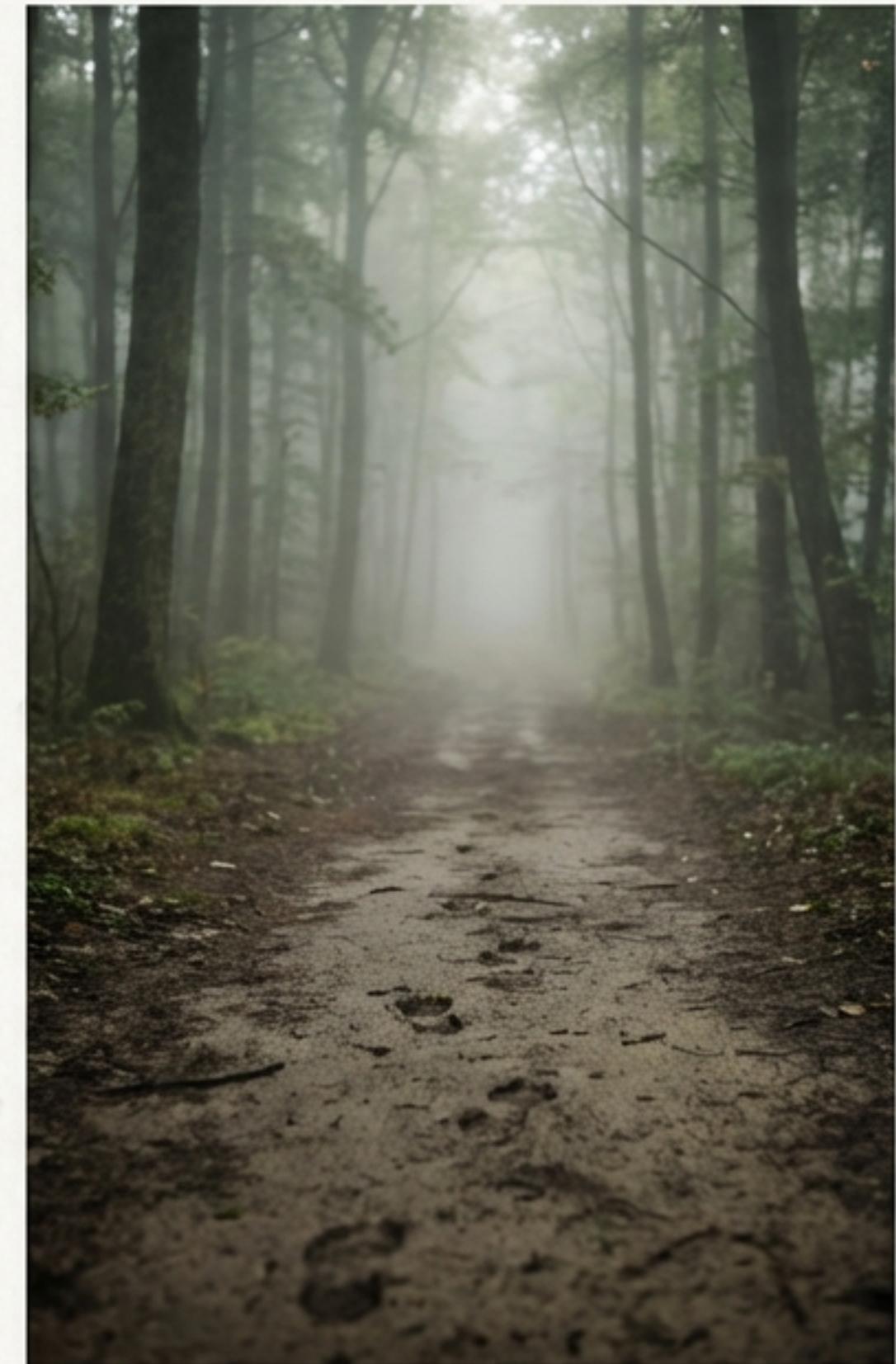
영원한 사랑

김석주 목사 설교 요약
요한복음 3:16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친구를 만나지만, 그 우정이 영원한지를分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11



첫 번째 친구: 오직 살아있을 때만 함께하는 ‘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곁을 지켜주다가,
죽음의 순간에는 가차없이 우리를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 친구: 무덤까지만 동행하는 ‘가족과 지인’

우리의 두 번째 친구는 부모, 형제,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매우 귀하지만, 그들 역시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의 동행은 **무덤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하는 단 한 명의 친구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무덤 속에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3:16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15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세상'은 종종 사탄을 가두고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한 죄악으로 가득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떤 차를 타고 있다면, 그 차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불태워 없앨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 때문에 세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나를 향한 선택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야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믿지 않아도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백성’의 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 마태복음 1:21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희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희생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를 깨뜨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5:8



물망초의 교훈: "나를 잊지 마세요"

험한 절벽에 핀 아름다운 꽃, 물망초.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꽃을 딴 남자는, 그녀에게 꽃을
던져주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나를 잊지
말아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지막 외침과 같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회개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 (Repentance)

'믿는 자'는 곧 '회개하는 자'입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용서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크기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은 **용서**하십시오.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3-4

영원한 사랑의 일상적 표현: 미고사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마디 말을 기억하고 사용하십시오.

미 고 사

미안해 (I'm sorry)



고마워 (Thank you)



사랑해 (I love you)



이번 성탄절,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족에게, 특히 배우자에게 이 말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자기를 깨뜨리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과 동행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